녹지구역 공간 설정·관리 '가'부터 '마', 5개 등급구분

서울시 토지적성평가제 운영

각종계획 정량적 판단 근거 활용
각 필지의 종합적성점수 산정
전체 녹지 88% 보전적성 토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서울시가 토지적성평가 제도를 실시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비시가화구역(녹지구역)의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관리전략을 세우기 위한 토지적성평가 제도를 운영한다.

토지적성평가란 땅의 환경생태·물리·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개별 토지가 갖는 사회적 가치를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할 때 정량적인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평가 범위는 서울 전역의 녹지지역 234.59㎢로, 시 전체 면적의 39%다. 평가 지표는 ▲경사도 ▲표고 ▲기 개발지와의 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경지정리지역 면적비 ▲상태자연도 상위등급비 ▲공적규제지역 면적비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도시용지 인접비율 ▲도로와의 거리 ▲하천·호소·농업용저수지와의 거리 ▲비오톱 1등급 지역과의 거리다.

시는 "작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녹지보전 시책 방향과 정합성이 높은 12개 평가지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적성평가에서는 지표별 상·하위 20% 측정값을 최대, 최소 기준값으로 설정해 각 필지의 종합적성점수를 산정, '가'부터 '마'등급까지 5개 구간으로 구분한다.

서울시의 적성등급별 토지 분포 현황 자료에 의하면 가등급 녹지지역은 91.19㎢(38.87%), 나등급은 54.16㎢(23.09%), 다등급은 52.86㎢(22.41%), 라등급은 31.36㎢(13.37%), 마등급은 5.30㎢(2.26%)다.

시는 전체 녹지지역 중 88.5%인 207.6㎢를 보전적성 토지로 보고 있다. 가, 나등급 토지인 145.4㎢(62.0%)와 다~마 등급 내 별도 분류 보전대상지역인 62.2㎢(26.5%)가 그 대상이다. 별도 분류 보전대상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국가·지방 하천, 개발제한구역 등 개별 법률에 따른 규제지역과 비오톱 1등급 토지나 용산국가공원 부지처럼 공간정책 및 계획상 보전이 필요한 곳이다.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보전적성이 높은 가, 나등급은 입안이 제한되고 다~마등급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시는 공공목적 사업 부지가 다·라·마 등급인 경우에는 입안 가능토록 하고 가~나등급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서울 전체 자연녹지지역의 토지적성을 평가해 '2040 서울플랜' 수립,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지원할 것"이라며 "비시가화구역의 공간구조 설정과 관리전략 수립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9호선 사업수익률 조정…"예산 절감"

기준금리 감소폭 반영 수익률 현실화
유관기관과 협의, 자금재조달 추진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자의 사업수익률(보장 이자율)을 조정하는 자금재조달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 사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9호선 1단계(개화역~신논현역) 구간 민간투자자의 사업수익률에 낮아진 시장금리를 반영해 재정지원금으로 투입되는 시 예산을 대폭 절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금재조달은 출자자 지분·자본구조·타인자본 조달 조건을 실시협약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3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운영 중인 9호선의 사업재구조화를 하면서 사업수익률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5%)에 맞춰 연 4.86%로 합의했다. 시는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실제 사업 수입이 미리 정해둔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비용보전액에는 투자원금과 투자원금에 대한 사업수익률, 관리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수익률을 낮추게 되면 비용보전액이 감소하고 서울시 재정지원금도 그만큼 줄게 된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가 연 0.5%로 2013년보다 2.0%포인트 낮아진 만큼, 서울시는 이런 기준금리 감소 폭을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추진한 자금재조달 타당성 검토용역에 따르면 2038년까지 서울시 예산 절감액은 사업수익률을 1%포인트 낮출 경우 약 400억원, 1.5%포인트 낮출 경우 약 6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9호선 투자자,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내년 3월 말 자금재조달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천원의 행복 '온쉼표', 이달말 공연 재개

세종문화회관
다양한 장르 공연 1000원 관람

세종문화회관은 단돈 1000원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2020 천원의 행복 시즌2 온쉼표'를 오는 30일부터 재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온쉼표'는 지난 2007년 시작한 이래 13년간 지속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매달 1~2회에 걸쳐 세종문화회관이 직접 기획한 클래식, 뮤지컬, 무용, 마술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단돈 1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올해 온쉼표는 12월까지 12개의 공연을 총 30회 선보일 계획이다. 전문극단 예술무대 산의 인형극 '그의 하루'를 시작으로 브러쉬씨어터의 '두들팝', 프로젝트 날다와 서울시청소년국악단의 합동 무대 '하루'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는 "문화 소외계층을 초청해 일정 비율의 객석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대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관계자를 포함시켰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한 이들이 지친 마음을 달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온쉼표 공연 모습. /세종문화회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첫 번째 공연의 예약이 시작된다. 공연 관람 희망자는 21일까지 온쉼표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세종대로에 설치된 클린로드. /서울시

열 식히고… 미세먼지 내리고… 클린로드 가동

서울시 유출된 지하수 도로 분사

서울시는 여름에 열기로 달아오른 아스팔트 도로 면을 식히고 먼지를 제거하는 '클린로드'를 시내 7곳에서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클린로드는 도로 중앙선에 설치되는 작은 사각형의 시설물로, 지하철역에서 유출돼 버려지는 지하수를 활용해 도로 면에 물을 분사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작년 여름 세종대로에 클린로드를 설치해 하루 3번 가동했더니 노면 냉각과 도로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올해 발산역(280m, 143개), 증미역(156m, 53개), 효창공원앞역(255m, 86개), 종로3가역(168m, 60개), 종묘 앞(385m, 129개), 장한평역(150m, 102개)에 클린로드를 추가로 설치해 순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시는 '2020 클린로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 전체 역사 368곳과 4개 물재생센터(서남·중랑·탄천·난지)에 클린로드 설치가 가능한지 조사하고 확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물 분사로 인해 보행 중이나 차량통행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시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헌혈로 생명을 나눠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세계 헌혈자의 날'인 14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헌혈의집 수원역센터에서 시민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세계 헌혈자의 날은 자발적 무상 헌혈에 참여하는 헌혈자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뉴시스

"친환경 보일러 교체하고 보조금 받으세요"

교체 가구 20만원, 저소득층 50만원

서울시는 중앙난방 방식인 아파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오래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전역에 설치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가 90만대(작년 기준)에 달하는 가운데, 시는 올해 친환경 보일러 25만대 보급을 비롯해 노후 보일러 전량 교체를 목표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에 20만원(저소득층은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 자치구에 관련 홍보비를 지원하고 보급 우수사례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보일러를 바꾸거나 새로 설치할 때 친환경 보일러를 의무화한 법령이 시행되면서 친환경 보일러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자치구별 친환경보일러 누계 판매대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관악구(2765대)였다. 양천구(2247대), 구로구(1675대), 중랑구(1535대), 강서구(1532대)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보급목표 대비 달성률이 우수한 자치구는 양천구(61.99%), 관악구(46.18%), 중랑구(40.39%), 구로구(37.25%), 종로구(35.56%)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 과장은 "서울 지역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난방의 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보일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